

박지원 원내대표 도전... 김부겸 경합

민주 내달 7일 경선... 이석현·강봉균·박병석 추격

계파간 대립 구도 불분명·단일화 여부 변수로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경선전 시작됐다. 민주당은 26~29일까지 차기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진행한 뒤 다음 달 7일 의원총회에서 경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원내대표 경선 구도는 당내 계파 간의 대립 구도가 불분명하고 국회 부의장 및 정당대회 구도와도 맞물려 있어 선불리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선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의 단일화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관세는 유동적이다.

우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복심이자 정력적인 박병석 의원은 원외계와 유연성을 토대로 강도의 정치를 펼치는 '성숙한 야당론'을 내걸고 있다.

박 의원은 정권 교체와 정권재창출 과정에서 정치적 역할이 검증된 만큼 출신과 계파와 상관없이 '인물론'으로 승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원내대표 경선에 세 번째 도전하는 김부겸 의원은 중도개혁 전 국정당을 내세우며 수도권 및 주류층의 지지를 결집시킨다는 방침이다. 원



박지원 의원 김부겸 의원

만하고 합리적인 성품이라는 점에서 비주류층의 지지도 기대하고 있다.

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의원은 '선박과 집중'의 효율적 대외관계와 개헌론을 내세우며 전북 지역 및 관료 출신 의원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정착위원장을 지낸 충청권의 박병석 의원은 협상력과 정책적 능력을 겸비한 대안정당을 표방하며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수도권의 이석현 의원은 비주류 대표 주자를 자임하며 세 걸출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5명의 주자가 나선 만큼 아직까지 판세는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일단 판세는 정치력과 친화력을 겸비한 박지원 의원과 세 번째 도전하는 김부겸 의원의 양강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4대강·무상급식 찬반집회·서명은 위법"

선관위 시민·종교단체·정당 활동 허용·금지 사례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시민·종교단체 등이 선거캠프 사할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무상급식 등에 대해 찬반집회를 열거나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어긋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자료를 내고 선거캠프와 관련한 시민·종교단체, 정부 및 정당 활동의 허용·금지 사례를 발표했다.

선관위는 무상급식, 4대강 사업은 각 정당과 임후보예정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정치논란이 계속되는 있어 '선거쟁점'에 해당하고, 선거캠프에 대한 정부, 정당, 단체의 활동은 선거법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선거 운동은 보장되나 선거기간 이전에 선

거쟁점과 관련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선거기간 집회 개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해 선거법상 금지된다.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찬반 가두서명, 피켓·표지판 등을 이용한 거리행진, 인쇄물 배부 및 게시,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현수막 및 시설물 설치,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발송 등도 선거법에 어긋난다.

다만 단체가 쟁점현안에 대해 찬반 입장을 결정한 뒤 이를 단체소속 구성원에게 기관지·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해오던 방법으로 알리거나 해당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은 가능하다.

종교단체의 경우 ▲4대강사업 관련 현수막 게시 ▲선거구민을 대상으

로 한 4대강사업 찬반 홍보책자 배부 및 서명 ▲미사·법회·예배 등에서 특정정당 후보자의 지지, 반대를 호소, 유도하는 발언 등이 금지사례에 해당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반면 선관위는 신자들이 대상으로 한 4대강사업 찬반 홍보책자 배부, 서명활동 등은 허용사례로 예시했다.

또 정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사업과 관련없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국정설명회를 개최하거나 대중매체 광고,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지난 12일 4대강사업 설명회의 최소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국토해양부 장관 앞으로 보냈고, 23일에는 법무부·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국토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총장에게 정부활동 허용·금지 예시 사례를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연합뉴스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 불발 26일 '스폰서 검사'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었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인해 소집 20여분 만에 무산됐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을 위해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꺼리는 등 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친이계 지원받아 대표직 도전이라니..."

김무성 원내대표 출마... 속내 복잡한 친박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의 26일 차기 원내대표 경선출마 선언을 바라보는 친박(친박근혜)의 속내는 복잡하다. 한때 동고동락했던 '좌장'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지만, 김 의원이 친이(친이명박)계의 지원을 받아 원내대표직에 도전하는 정치 행보는 응답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주류다. 한 의원은 이를 '심적 지지, 정치적 반대'라고 압축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침묵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그는 최근 일부 의원과의 모임에서 김 의원의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기자들의 비슷한 질문에도 "몰라요"라고 씩씩하게 답변했다. 이는 친이 주류가 작년 5월 '김무성 원내대표 추대'를 추진했을 때 정면 반대했던 것과 같은 기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김 의원이 세종시 절충안을 제시하며 정면 반기를 들었을 때 박 전 대표가 "친박에는 좌장이 없다"며 강한 톤으로 비판했고 이



는 김 의원에 대한 정치적 파문(敗門)으로 여겨졌다. 결국 친이계의 지원을 얻은 김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는 결국 두 사람간의 완전한 정치적 결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친이 핵심 의원들이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자신이 선택한 길인데 우리가 뭐라 하겠는가"라고 말하는 데서도 의면의 기류가 읽힌다. 그러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박 전 대표와의 관계를 긴 안목으로 고려, 김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친박 의원은 "결국 박 전 대표와

김 의원을 완전히 갈라놓고, 김 의원을 고리로 친박을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속셈이 아니겠느냐"고 친이계로 화살을 겨눴다. 다른 친박 중진은 "박 대표로서는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문제"라며 "계파 갈등이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일로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여기에는 원내대표 선출시 김 의원이 여권 주류의 견해를 내놓으며 박 전 대표와 자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정치환경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배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 일각에서는 경선에서 김 의원을 밀겠다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들도 김 의원의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세종시 수정 등 정책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부산의 한 의원은 "우리의 세종시 원안 찬성 입장은 변함없다"며 "김 의원을 고리로 우리가 세종시 수정란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썩기를 밝혔다. /연합뉴스

순천도 2개월짜리 시의장

김윤수씨 당선

순천시의회 새 의장에 재선의 김윤수 의원(69, 승주·주암·월동·황전·서면)이 선출됐다. 김 의장의 임기는 오는 6월30일까지다.

순천시의회는 26일 제14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공석인 의장 보궐 선거를 실시해 김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김 의원은 출석의원 15명 가운데 8

표를 얻어 6표를 얻은 3인의 조용훈 의원을 제쳤다. 재적의원 수 23명인 순천시의회는 이날 1명 기권, 나머지 8명은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불출석했다.

앞서 시의회는 전임 박광호 의장이 도의원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잔여 임기를 이광 새 의장 선임을 상정했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ja@

평민당 광주·전남 공천 시동

민주 탈락자 이동 관심

평화민주당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후보 공천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의 부실한 경선 관리 등으로 반발이 크게 확산되면서 경선 탈락 후보들의 평민당 이동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평민당은 공천 탈락자를 흡수하는 '이삭줍기'보다는 참신한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광주·전남지역에서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평민당 광주시당은 26일 박종철 광주시당 위원장을 공천심사위원장으로 하고 김종희 전남대 교수, 신인환 조선대 교수, 이원장 호남대 교수, 최동석 광주시 서구사회회 회장 등을 공천심사위원으로 위촉, 공천 체계를 서두르고 있다.

평민당 김정현 대변인은 "평민당

은 참신하고 능력이 검증된 후보를 선출, 광주·전남 민심의 선택을 받는다는 방침"이며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에 실망한 지역 민심은 평민당 바람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의 각종 논란으로 평민당의 문을 노크하는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발걸음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무소속으로 나서기 보다는 평민당이라는 간판을 입고 지방선거에 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선거차량

음향차량, LED차량(1.5t, 2.5t, 5t)

선거홍보물 기획/제작/시공대행

www.jwad.co.kr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82-2285

토지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 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평민당

광주, 전남 최고! 전통적인 커뮤니티

다년 전통의 최고 서비스 국내는 물론 해외 교포들도 직접 연결됩니다. 통역할 수 있습니다.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운영입니다.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운영입니다. 지금당장 확인하세요 전화주시 연결

100% 가입률 보장

전국 최저 요금제 이용!

문의 1588-3533

*여성분은 문의시 무료 전화번호를 알려 드립니다.

365일 24시간 언제나 열린공간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히트폰

전화정보(ARS) 사업자 모집 | 무제한, 무정도 약속만 있으면 됩니다 010. 3608. 2888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대출

- ◆ 마니또론 신용대출
 -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프리랜서 등
 - 추가대출, 대환대출, 채무통합, 신규대출 (7.5% 고정금리로 4년분할상환)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 ◆ 아파트론 - 무담보 아파트대출
 - 근저당설정없이 추가대출가능
 - 소득증빙 無, 무직자, 주부도 가능

소액필요한데 근저당설정하기 귀찮으시죠? 하나캐피탈 아파트론 이용하세요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과 한가족입니다!

www.hanacapital-manitoloan.co.kr

하나금융그룹 공식상담사 안광호 팀장

☎ 010-4041-1121

위 상담사는 여신금융협회에 정식등록된 상담사입니다